



열대의 밤 잠 못드는 시민들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5일 밤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대운동장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섭씨 33도 안팎으로 오르고, 밤 사이 온도가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6·14면

광주 현안사업 정부 무관심 度 넘었다

문화전당 개관 10개월째...전당장은 아직 '공석' 컨트롤 타워 부재로 내년 전당 예산 반토막 우려 세계수영 대회는 총장 인선 갈등 속 예산 미반영

광주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도(度)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지역현안 중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의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대폭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컨트롤 타워가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 3월 시작한 공개 모집에서 적격자를 뽑지

못하고 문화전당장에 대한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후보 2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 안팎에서는 전당장 선임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9월까지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당장이 선임되는 시점까지 불안정한 직무대리 체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내년 문화전당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리더십 공백은 더 커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 1차 예산심사에서 문화전당 내년 예산이 402억원만 인정돼 사실상 반토막났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724억원보다 322억원(44.4%) 줄어든 수치다. 나머지 예산은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문화전당장을 비롯한 문화부에서 노력해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전당장 선임시기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아시아문화개발원장(현 아시아문화원 전신)도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기재부의 2차 예산심사에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내년 예산 19억원

이 책정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시가 요구한 74억원 가운데 시설 설치비 등에 해당하는 19억원만을 반영했지만, 이마저도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 3차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청 공무원 노조의 전공노 가입과 수영대회 사무총장 승인 문제로 정부와 줄곧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가 어떤 해법을 통해 정부를 설득할지 주목된다. 특히 수영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승인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영택 내정자에 대한 전문성 미흡 등 적정성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더욱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향후 원만한 소통을 통해 대회 개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 내정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짝 물러서 주는 게 하나의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남도문예 르네상스' 24개 사업 2120억 투입

올 하반기 4개 선도사업 착수

전남도가 서화, 전통정원, 종가문화 등 전남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문화자원'을 토대로 남도문예의 제2전성기를 이끌어낸다. 전남 국제수목화 비엔날레 등 24개 선도·핵심·연계사업에 앞으로 국비 1016억원 등 모두 2120억원여를 투입된다. <관련기사 3면>

김갑섭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25일 '남도문예 르네상스' 본격 추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도문예 르네상스는 지난해 육성했던 전남의 우수한 전통 문화예술자원을 '웰빙과 힐링'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재조명하고 부활시키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어려운은 있겠지만 반드시 성공하도록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남도문예 르네상스'를 '에너지산업'과 함께 민선 6기 후반기 2대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김 부지사가 이날 발표한 '남도문예 르네상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화, 전통정원, 바둑, 종가문화, 음식, 문학, 판소리 등 12개 비교우위 핵심자원의 성격과 활용도를 분석해 ▲문화예술 기반 조성 ▲콘텐츠 개발 ▲향유기회 제공 ▲에듀테인먼트(교육+놀이) ▲산업적 부가 가치 극대화 등 5대 추진과제와 24개 융복합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단위사업은 선도사업 4개, 핵심사업 8개, 연관사업 12개 등 모두 24개 사업이다. 선도사업은 전남 국제 수목화 비엔날레 개최, 한국 전통정원 조성, 종가문화 활성화,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핵심사업은 전남 문화예술 아카데미 구축, 전남 문화예술 창작센터 설립, 남도문화벨트 조성,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 등이다. 또 도립미술관 건립, G&J 광주 전남 갤러리 설치, 국학호남진흥원 설립, 황해역사교류관 건립 등 12개 사업을 연관사업으로 추진한다.

연도별 사업비는 2016년 39억원, 2017년 251억원, 2018년 996억원, 2019년 이후 835억원이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선도사업 4개에 착수해 지역민과 예술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 국제수목화 비엔날레는 9월 정부가 국제 행사 승인을 신청하고, 10월 영호남 수목화교류전을 개최한다. 2017년에는 한·중·일 등 동양권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 교류전을 개최한다. 2018년에는 국제적 규모의 정식 비엔날레로 승격시켜 서양 미술 위주의 기존 비엔날레와 차별화해 나간다. 전통정원 조성은 하반기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 상태를 파악한 다음 기존 정원과 누정을 복원하고 네트워크화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리우 올림픽 D-10 광주·전남 선수단 35명 참가

세계인의 축제,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은 광주·전남 출신 스타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기회다. 25일 광주·전남체육회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출신 선수와 임원 등 35명이 리우올림픽에 참가한다. 광주에서는 13명의 선수단이 금빛 레이스를 펼친다. 최미선(20·광주여대·무안), 기보배(28·광주시청) 등 광주 여중사 2명에 한국 여자양궁 올림픽 단체인 8연패의 성패가 달려 있다. 김덕현(31·광주시청)의 한국 육상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이라는 꿈이 이따금씩 다가올 전망이다. 김국영(26·광주시청)도 100m 한국 신기록 달성

에 도전한다. 한국 여자유도의 기대주 김성연(25·광주도시철도공사·순천)의 '금빛 메치기', 화순 출신으로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28·삼성전기)의 마지막 올림픽 금메달 달성 여부도 관심사다. 전남에서는 최경주(안동) 남자 골프 감독과 안현봉(해남) 레슬링 감독 등 17명이 선수·임원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함평골프고(62회 졸업) 출신으로 올림픽에 나선 전인지(22·하이트진로), 영암출신의 김세영(23·미래에셋) 선수의 메달 경쟁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한 경기다. 한편, 윤정현 광주시장은 26일 오전 9시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도로가 개인 주차장? '암체 상인' ▶7면
- 강진의 여름 유혹, 청자축제 ▶11면
-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오디션 ▶17면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